

# 바이든 “러 핵위협 위험한 발언”

### 푸틴,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비난 이스라엘, 사법정비 포기도 촉구 네타냐후 백악관 초청 고려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직접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 집권세력에 이른바 ‘사법정비’ 시도를 포기토록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웃 국가인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AF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이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으며, 나는 그 점을 상당히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장 일정을 끝내고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을 했다.

바이든은 “(네타냐후 총리)가 진정한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에 네타냐후를 초청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에게 직접 얘기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주재) 우리 대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복귀한 후에도 이스라엘 상황을 우려하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있는냐는 질문을 받고 바이든은 “변곡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분명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곡점’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바이든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가 추진중인 ‘사법정비’ 법안에 대해 “그가 포기하기를 나는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이며 국민의 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해외로부터의 압박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면서, ‘해외’에는 “가장 좋은 친구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도 “위험한 발언이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가) 아직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옮기고 있는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 준비...우크라이나에 초청”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시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AP 통신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시진핑)를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와 대화할지 원한다. 나는 (작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 그와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지난 23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달 20-22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을 찾은 시 주석을 극히 환대했으나,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은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일 뒤인 이달 25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맞댄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 눈길을 돌릴 목적으로 깜짝 발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총기난사’ 미 초교 앞 추모글들 28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 초등학교 커버넌트스쿨 앞에 마련된 십자가 조형물에 전날 이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있다. 이 학교 출신 28세 여성이 저지른 범행으로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총 128건에 달한다. /연합뉴스

## 중국서 H3N8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자 발생

### 두번째 인간 감염 사례

중국 광둥성에서 H3N8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나왔다.

작년 4월 중국에서 H3N8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는 56세 여성이 H3

N8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28일 밝혔다.

현지 방역 당국이 의심 증세를 보이는 이 여성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H3N8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 여성이 굴수종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집 주변에서 야생 가금류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 밀접 접촉자 추적 관리, 감염 지역 가금류 살처분 및 소독 등 방역 조치했다”며 “밀접 접촉자 가운데 추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고기는 충분히 익힌 뒤 먹어야 하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서둘러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은 우발적인 사례로 전파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 권도형 “도피증 세계 곳곳 VIP 대접” 폰·노트북에 흥미로운 정보 상당량

### 몬테네그로 경찰에 진술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도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이날 포드고리차의 내무부 청사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권도형과 그의 일행은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하더라”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고 우리 관리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아지치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권도형 대표 일행이 몬테네그로에 들어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춰 불법 입국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몬테네그로 입국 전에 명시되지 않은 이웃 나라에서 일정 시간을 머

물렀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사법당국이 앞서 지난 달 권도형 대표 일행의 행방을 세르비아에서 수소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아지치 장관은 또한 권 대표와 측근인 한 모 씨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기 전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권 대표 일행이 자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조사를 통해 위조된 벨기에 여권,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 한국 여권 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권 대표 일행으로부터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도 압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아지치 장관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답변하길 거부한 채 “매우 흥미로운 의미있는 분량의 정보를 발견했다”고만 언급했다.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을 때릴 때
-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조사를 합니다.
-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스컴퍼니